

“세상의 변화 이끄는 도전 이어가겠다”

조선대 인액터스 ‘현대해상 씨앗 프로그램’ 2년 연속 1위 페어망—재생활라스틱 ‘펠릿’ 가공...“환경사업 확대 모색”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인액터스 팀이 최근 현대해상 씨앗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인액터스는 전 세계 30여개국 1천700여개의 대학과 세계 우수 기업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갖춘 실천형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 연합 단체로, 조선대학교 인액터스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조선 라이프아카데미 5기’ 학생들을 주축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뒤 각종 창업경진대회 및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7일 조선대 인액터스 (지도교수 박종철 경영학부 교수)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후원하는 ‘씨앗 프로그램’은 시작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경진대회에서 평가한 뒤 아이디어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달 20일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올해 경진대회에선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최종 TOP4에 선정됐다. 이 중 최종 1위는 조선대 인액터스(DABA팀)가 차지

하며 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다시 맑고 깨끗했던 모습의 바다로 되돌리자”는 슬로건의 DABA팀은 전남 해안에 방치·수거되지 못한 ‘페어망’을 수거한 뒤 세척과 파쇄를 거쳐 재생 플라스틱 펠릿으로 가공한다. 이후 플라스틱 펠릿은 B2B(Business to Business)를 통해 사회책임기업에 납품된다.

DABA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양 쓰레기의 약 4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페어망을 ‘리사이클링(Recycling)’ 함으로써 바다가 깨끗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페어망 가공과 플라스틱 펠릿 공급이 안정된다면, 펠릿으로 3D 프린팅에 필요한 ‘필라멘트’ 제작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구와 개발을 마친 뒤엔 필라멘트를 초·중·고등학교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듯 DABA팀은 보다 넓은 환경이 지켜지고 바다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사업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다.

박가연 (경영학과 4학년) DABA 팀장은 “바다가 다시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



조선대학교 인액터스가 지난 5월20일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현대해상 씨앗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조선대 인액터스 관계자들.

도록 수거된 쓰레기의 재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며 “플라스틱 펠릿처럼 아이디어가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탁 (건축공학과 4학년) 인액터스 회장은 “개개인의 작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모여 지역 사회에 실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임이 바로 ‘인액터스’라며 “대학생으로서, 경험이 없어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대신

“일단 해 보자”는 의지를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DABA팀 외에도 인액터스 조선의 모든 팀은 앞으로도 작게나마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대학생들의 도전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안재영기자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장교육 평가회의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청소년 성장교육 평가회의·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포함해 도박 중독, 미디어 과의존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성장 배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인격 형성을 통해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장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3·6월 관내 초·중·고등학교 21개교, 2천6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미디어 선용 교육’,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스포츠 인권 교육’ 등을 제공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진행했던 교육 실적과 수강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확인·분석함으로써 교육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사진과

실무진 간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에게 더욱 유익하게 다가가기 위한 교육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김정화 센터장은 “청소년 성장교육을 강의해 준 강사들께 감사하다”며 “영광은 물론, 전국에서 학교폭력을 비롯해 청소년이 관련된 비행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기관으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만 9~24세)을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모래놀이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1388청소년전화(061-353-1388)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도움 받을 수 있다. /영광=김동규기자



광주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7일 “광주 서구청 2층 들불홀에서 위탁부모들을 대상으로 ‘2023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사행성 게임 문제로부터 아이들 보호하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 보호정책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춘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위탁부모들이 아동 양육 관련 어려움에 대해 적절한 대처 방안을 알고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탁아동이 위탁가정 안에서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황금영 순천중돈장 대표 ‘축산업계 1호 나눔리더’ 가입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일 “황금영 순천중돈장 대표가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20인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에 ‘축산업계 1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은 전남 사랑의열매에서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지역 내 인사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모금사업으로 개인 기부자 가운데 1년 내 100만원 이상 일시 기부 또는 약정한 사람에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황금영 순천중돈장 대표는 “50년이 넘도록 농장을 운영하면서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겨왔다”며 “이 성금이 이웃들과 더불어 상생하는 전남도가 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중돈장은 이번 전남 나눔리더 가입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희망나눔생명재단에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에도 동참하고 있다. /주성학기자

광주시 ‘5월의 공무원’ 강은숙 팀장·김경명 주무관

‘광주다움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을 이끈 공직자가 이달의 공무원에 선정됐다. 광주시는 7일 “5월의 공무원”으로 복지정책과 강은숙 팀장과 김경명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강 팀장과 김 주무관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대1 맞춤 돌봄 체계를 구축, 시민의 복지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실제 돌봄이 필요한 지 여부를 심사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은숙 팀장은 “돌봄은 평범한 일상과 인간



다운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강기자



밝은안과21병원, 나눔활동 공로 ‘남구청장 표창’

광주 밝은안과21병원은 7일 “지난 5월 광주 남구 가족 소통&공감의 날 행사에서 남구청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장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남구민에게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김택배 밝은안과21병원 대표원장은 “앞으로도 남구민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의료 지원을 이어가며, 양질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밝은안과21병원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광주 자치구 4곳과 무료 백내장 수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광주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취약 아동에게 무료 사시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오복기자

박우량 신안군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동참



박우량 신안군수는 “최근 마약범죄 예방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

“NO EXIT”는 중독성이 강해 빠져나오기 힘든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한 국민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공동으로 추진 중인 릴레이 캠페인이다.

박 군수는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의 지령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박 군수는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각종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합동해 마약범죄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과 홍보로 ‘마약 없는 안전한 신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안=양훈기자



목포경찰, 가정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

목포경찰서는 “최근 여성긴급전화1366, 목포 시가족센터, 목포여성상담센터, 하당노인복지관과 협업해 가정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지난해 6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은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목포역 일대에서 집중 홍보했다.

또 가정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해 일대 상가를 직접 방문, 전단지 및 홍보 물품을 전달해 호응을 얻었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정폭력·아동학대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약자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나주경찰,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나주경찰서는 “다음달 18일까지 ‘경찰서-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 인력풀로 구성된 강사단 13명이 나주상업고등학교 등 관내 2개 학교에서 학교폭력·청소년범죄(미약·도박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도박·마약 문제, 청소년 차량 절도 등에 대해서도 사례 위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훈 나주경찰서장은 “최근 학교폭력·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지능화 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교육청과 협업체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청소년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학교와 각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정준환기자

결혼

▲윤광식·이광자씨의 장남 삼일군, 곽성남·임금자씨의 장녀 지혜양=10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59 라블레웨딩홀 3층 라블레홀